

전문대학교 간호학과 만학도 여학생들의 대학생활 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지

김 유 나¹⁾

조 한 익²⁾

경상국립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전문대학교 만학도 여학생들의 대학생활 경험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현재 전문대학교 간호학과에 다니는 30대 이상의 만학도 여학생 9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하였으며 Spradley(1979, 1980)의 문화기술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 경험은 간호사가 되기 위한 여정의 시작, 낯선 곳의 이방인, 학생이기를 방해하는 걸림돌, 학업이라는 난관의 봉착, 나와 같은 사람들과의 동행, 공존하는 방법을 알아감, 간호사가 되기 위한 성장의 기회, 목적지를 향한 발걸음의 총 8개의 주제들이 도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전문대학교 간호학과를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생각하고 입학하였지만 학습에 대한 어려움, 소수자로서의 소외감, 다중역할로 인한 학습시간의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에서의 공부를 통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였으며, 학업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간호학과 만학도의 대학생활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에 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을 높이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주요어 : 전문대학교, 간호학과, 만학도, 대학생활 경험, 문화기술지

1) 경상국립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2) 교신저자 : 경상국립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mail: h1652@gn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2025년 고령인구비율은 20.6%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통계청, 2021). 이에 따라 의료수요의 급증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치매 국가책임제 등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국내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만연함에 따라 의료인의 절대적 중요성과 의료인력의 핵심인 간호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즘은 간호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간호사의 경우 법적 의료인으로서 전문직에 해당되며 취업 및 재취업률이 높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간호학과에 대한 인기도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25세 이상 성인이 많이 찾는 전문대학의 학과는 간호학과, 안경광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비교적 정년없이 일할 수 있는 전공분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19.04.03.) 이와 더불어 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난이 장기간 심화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평균 수명의 증가 현상이 맞물리며 평생 직업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면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 전문대학교에 지원하는 성인학습자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문대학교의 연령별 입학생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4년 이후 25세~29세의 입학

자가 증가하고 있어 입학연령이 늦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이후 40~49세의 입학자 비율이 25~29세의 입학자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고, 25~29세 입학생의 비중이 2017년 대비 2.7%에서 2021년 5.0%로 2.4% 증가하였으며, 20~49세의 경우 0.8%, 50세 이상의 경우 2.4%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21).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대학진학 적령기를 경과한 25세 이상의 전형적인 성인학습자를 만학도라고 하는데(이정희, 안영식, 2007), 대학교 입학전형에서는 만학도를 입학전형자격 기준으로 25세, 30세 이상 등의 연령 요건으로 적용하기도 한다(손준중, 구혜정, 2007). 만학도는 평생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향과 인식의 확산으로 새로운 학습자로 주목받으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현재 대학의 정규학위과정 밖에서 제공되었던 교육의 기회가 대학 제도 안으로 확장되는 추세에서 만학도가 대학 주변의 비전통적인 학습자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집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한상길, 2008; 황지원, 노일경, 정혜령, 2016).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체계는 여전히 일반대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교육적 배려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만학도들이 일반대학생들보다 학업에 대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진영, 윤대한, 윤현숙, 오선아, 2014).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학도들 역시 대학교육에서 중요한 교육적 주체로 자리 잡아야 할 것으로 본다.

만학도와 관련하여 수행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만학도의 대학생활 경험이나 학습경

험을 유형화한 연구(박연하, 2006; 이정희, 안영식, 2007)를 비롯하여 학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민선향, 2007; 이슬기, 2009), 일반대학생과 성인학습자 간의 비교연구(김정은, 2011; 박진영, 2007) 등이 있으며, 국외의 연구로는 대학생활에서 만학도와 일반대학생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Boyer, 1974; Faust & Courtney, 2002; Kaworm, 2005; Kaworm, Sandmann, & Sissel, 2000)들이 수행되었다. 또한 만학도를 중심으로 한 질적연구로는 상담 전공 만학도의 학부과정 경험에 관한 연구(김건축, 조남정, 최은미, 하혜숙, 2013), 50대 만학도 여성의 생애사에 대한 연구(김정민, 최연실, 2014)가 있으며 만학도의 대학진학 동기와 삶의 경험에 관한 연구(김광수, 2020)들이 있다.

대체적으로 여성 만학도들의 대학진학 동기를 살펴보면 배움에 관한 즐거움이나 지식, 기술의 습득 등과 같은 학습지향성 요인과 학력에 대한 열등감 해소, 취업시 필요한 지식과 기술, 자격증을 얻기 위한 조건취득 등의 실제지향성 요인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권정혜, 최은희, 최성열, 2015). 이는 우리나라 성인여성의 경우 고등교육 기회를 학령기에 부여받지 못했거나 생애전환기에 이르러 사회참여나 자기계발 등의 목적으로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가 많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우 재취업을 목표로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대명, 2014). 여성들은 진로선택 시 가정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결혼, 가정의 경제수준, 과거나 현재 그들이 속한 가족의 문화적 가치 등에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남성보다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이 복잡하다(Betz & Fitzgerald, 1987). 진로를 선택할 때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고려하며 이를 양립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선택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이 존재하면 여성적이고 낮은 명성을 가진 직업에 대해 포부를 형성한다(Corder & Stephan, 1984). 과거 직종별 성별 차이가 뚜렷했던 시대에 전통적으로 간호사라는 직업분류에는 여성이 대부분이었으며,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비교적 사라진 현재에 이르러서도 대부분의 간호학과에서는 여학생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지방 전문대학 간호학과의 양적 증가 및 입학 연령과 전형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전문대학의 입시구조, 높은 취업률과 정년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으로 인해 간호학과는 여성 만학도들에게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간호학과 학생의 경우 생명을 다루는 학문적 특성으로 인해 과중한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을 통하여 다양한 간호현장을 경험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김은아, 장금성, 2012).

간호학과 학생들은 이론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교과과정으로 인해 학업이나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고(박주영, 2011), 실습 중 발생하는 대인관계 문제 등으로 다른 대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현주, 장인순, 2010). 또한 간호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은숙, 박현정, 2014). 그러나, 간호학과 교과과정의 특성상 겪게 되는

어려움에 더하여 만학도로서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부수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여 볼 때, 간호보건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만학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만학도를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학과 만학도와 관련하여 기존에 수행되었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 입학전 직업이 간호조무사이거나 기혼 여성인 경우로 연구참여자를 한정하여 대학생활 경험을 탐구하였으나(김현, 2018; 손세정, 김현정, 2017), 본 연구의 경우 미혼 여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을 가졌던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총체적인 관점에서 간호학과 만학도들의 경험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교육이 대학에 활성화됨에 따라 대면교육이 주를 이루었던 과거에 비해 이들의 경험이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교 간호학과 여학생들의 대학생활 경험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질적연구 중에서 문화기술지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문화기술지 연구는 사회집단과 공동체들의 일상적 세계들을 이해하고 기술하는 연구방법으로, 연구자가 문화 공유집단이 갖고 있는 가치, 행동, 신념, 언어의 공유되고 학습된 패턴을 기술하고 해석하는 질적연구의 한 형태이다(Harris, 1968). 문화기술지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에 의해 개념화된 문화의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들과의 관계를 확인한다(Spradley, 1979, 1980). 문화기술지 중에서 초점화된 문화기술지(focused ethnography)는 공통적 요인을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단위 혹은 소집단에서 일어나는 과정

에 집중하여 문화적 규칙, 규범 및 가치를 확인하고 구성원의 상호작용과 구조 등 문화적 현상을 이해하는 것으로 전문대학교 만학도 여학생 집단의 대학생활 경험에서 드러나는 의미와 경험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적절한 연구방법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점화된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간호학과 만학도 여학생들의 대학생활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문대학교 간호학과 만학도 여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2. 연구문제

전문대학교 간호학과 만학도 여학생들의 대학생활 경험을 살펴보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전문대학교 간호학과 여학생들의 대학생활에서 드러나는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전문대학교 간호학과 여학생들의 대학생활 경험의 구조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문화기술지 연구에서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풍부하고 깊이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Spradley

(1979, 1980)는 연구참여자의 조건으로 이야기를 즐겨하고 비학술적인 토착언어를 사용하며 그 지역이나 집단에 오랜 연고가 있어 그 문화에 정통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안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구자와 지방 전문대학에서 강사와 학생의 관계로 만나 1, 2년의 시간을 학교 현장에서 함께 보냈으며, 평소 연구자와 개인의 삶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연구 참여에 관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한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의도적 표집방법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참여자는 지방 전문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9명의 여성 만학도들로, 혼인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30대 초반에서 50대 후반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9명의 여성 만학도들에게 연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연구 참여를 승낙한 9명의 연구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 1과 같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에게 자신에 대한 개념과 경험을 언어로 이야기하는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여성 만학도들의 대학생활 경험을 밝히기 위해서는 주로 언어를 통해 문화를 연구하는 문화기술지 접근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심층면담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료원으로 활용하였다. 간호학과 만학도들의 경험에 대해 깊이 있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인터뷰 가이드를 활용하되, 질문 방식에 자율성을 가지는 반구조화된 면담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인터뷰 가이드는 대학에서의 경험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집중하기 위해 인터뷰 가이드를 활용하는 한편, 면담 과정에서 연구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유도질문은 사용하지

표 1. 연구참여자들의 기본 정보

	학년	연령	결혼상태	자녀 정보	입학 전 직업
연구참여자 1	2	52세	기혼	대학생 2	간호조무사
연구참여자 2	2	45세	기혼	대학생 1, 고등학생 1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연구참여자 3	3	46세	미혼	없음	학원 강사
연구참여자 4	2	34세	미혼	없음	캐디, 중공업 회사원
연구참여자 5	2	38세	미혼	없음	영어강사, 간호조무사
연구참여자 6	2	29세	미혼	없음	엔터테인먼트 회사원
연구참여자 7	2	55세	기혼	대학생 1	간호조무사
연구참여자 8	4	41세	기혼	초등학생 2	청소년 지도사, 간호조무사
연구참여자 9	2	54세	기혼	성인 2	자영업, 간호조무사

표 2. 면담 질문내용

질문내용
1.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2.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3. 간호학과로의 진학 시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4. 간호학과에 다니면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5. 간호학과에 다니면서 배우게 된 점이나 의미있는 경험은 무엇입니까?
6. 학교생활을 경험하면서 일어난 삶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7. 간호학과 졸업 후 장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심층면담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연구자와 일대일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참여자 각각 2~3회로 회당 100분에서 1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면담장소는 연구참여자의 허락하에 학내 도서관의 스터디룸이나 조용한 카페에서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참여시 녹음에 대하여 연구자들과 충분한 합의의 통해 동의하였으며, 대화를 녹음한 자료들은 모두 전사 작업 후 문서화하여 보관하였다.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면담 질문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주요 연구질문인 간호학과 만학도들의 대학생활 경험은 어떠한가에 대해 의미를 찾고, 경험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문화기술지 연구과정 모형으로 Spradley(1979, 1980)가 제안한 단계적 분석방법에 따라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단계적 분석방법으로 순환적인 연구과

정을 가지고 의미론적 관계에 근거하여 자료로부터 함축된 영역을 구조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원자료에 근거하여 의미론적인 관계에 초점을 두고 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의미영역들을 추출하는 영역분석을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성된 영역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분류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문화적 범주 및 관계된 속성들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성분분석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미 영역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핵심개념에 대한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기술지 연구의 분석방법과 절차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서 문화의 부분들을 발견하고 각 부분들 간의 관계와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료분석의 결과 130개의 개념들을 바탕으로 19개의 핵심범주와 8개의 주제들이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도출된 주제를 살펴보면 ‘간호사가 되기 위한 여정의 시작’, ‘낮선 곳의 이방인’, ‘학생이기를 방해하는 걸림돌’, ‘학업이라는 난관에 봉착’, ‘나와 같은 사람들과의 동행’, ‘공존하는 방법을 알아감’, ‘간호사가 되기 위한 성장의 기회’,

‘목적지를 향한 발걸음’이다. 이후 분류된 주제들을 원자료와 체계적으로 연결시키고 이론적 도식을 제시하였다.

4.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의 엄격성을 갖추고자 하였다. 첫째, 연구자들은 전문대학교에서 만학도들을 비롯한 일반 학생들에 대한 교육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현장에 참여하고 이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 이에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내적 고민들에 대해 깊이 있고 진솔하게 이야기해주었으며, 연구참여자와의 가까운 관계는 참여자들의 경험을 왜곡하지 않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둘째,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마치고 나면 즉시 연구자 저널을 작성하였으며, 자료의 중립성을 위해 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다음 면담에서 재확인하였다. 셋째,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고자 면담의 내용에 대해 연구참여자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자의 해석에 대한 직접적인 수정 작업을 함께 하여 다각도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학제적 의미와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자들 간에 끊임 없는 협의와 검토를 하면서 연구결과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문화기술지, 내러티브, 근거이론 등 질적연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경험이 있고 오랫동안 질적연구를 해왔기 때

문에 문화기술지 연구를 하는 동안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전문대학교 간호학과 여학생들의 대학생활 경험을 연구하면서 연구자들 간에 협의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쳤으며 연구자들과 연구참여자들 간에도 깊이 있는 면담과 더불어 확인 과정을 거치는 등 간호학과 만학도의 삶의 경험을 진실성 있게 접근하여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윤리적인 부분들에 대해 고려하였다. 먼저, 연구참여자에 대한 최대한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들은 본 연구목적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연구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연구 보고서는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사적인 상황은 비밀로 유지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진행과정 중에 참여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으며, 이에 관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재차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물과 관련하여 본인이나 원하지 않는 내용은 연구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추후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음을 안내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전문대학교 간호학과 여학생들의 대학생활 경험

전문대학교 간호학과 여학생들의 대학생활

표 3. 전문대학교 간호학과 여학생들의 대학생활 경험의 범주화 과정

주제	범주	속성
간호사가 되기 위한 여정의 시작	전문직을 요구하는 현실	전직, 직장에서의 부정적 경험
		사회적 분위기, 전문직, 취업보장
		현실생활의 어려움, 주위 사람들의 조언
	도전하는 나	어린 시절의 꿈, 간호사에 대한 동경
	만학도를 위한 입시전형	직성, 인식을 바꿔준 모델, 도전 수능, 대졸자 전형, 만학도 전형 학교가 구제해 주는 느낌, 감사함
낮선 곳의 이방인	응원에 힘입음	가족들의 지지와 응원 친구 및 지인들의 긍정적인 반응
	차가운 시선	만학도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인 시선
		편견, 무시, 트러블, 교수의 차별대우
		갈등, 견제, 선입견
	관계맺기 어려움	세대차이, 학생들 눈치봄, 다가가기 어려움 피해를 줄까 걱정됨, 행동 자제 및 회피 관계맺기가 두려움, 부담스러움
학생이기를 방해하는 걸림돌	불편한 시설과 제외되는 특혜들	어학연수, 장학금, 동아리, 학사일정, 교통, 시설불편(환경 및 제도적 불만요인) 전문대로서의 한계
	배움의 대가	경제적 어려움, 가족에게 미안함
		역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늦은 나이 체력적 부담	답답함, 피곤함
		체력, 건강관리, 갱년기
학업이라는 난관	학업적 한계에 직면	서글픔, 후회, 자책, 우울, 좌절, 창피함
		학습내용의 어려움, 실습과정에서 어려움
		성적에 대한 압박감, 회피, 걱정, 불안
	학업에 대한 염려	스트레스, 답답함, 좌절감
		현직 간호사들에 대해 이해함 현장실습에 대한 걱정, 국가고시 취업 시 염려, 병원채용, 두려움
나와 같은 사람들과의 동행	서로 의지하고 돕기	학급만학도의 부재, 만학도와 같은 반이 되길 희망 만학도간 관계형성, 정서적 지지, 정보 공유
	만학도가 바라보는 만학도	만학도에 대한 상호 간의 인식
		비교를 통한 위안, 안도감
공존하는 방법 터득하기	학교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내적인 노력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함
		개인의 인식을 바꿈, 대인관계에서의 반성
		성적주위로 인한 안타까운 마음
	학교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대외적 노력	스트레스 관리
		호칭, 친밀감 형성 학교생활의 즐거움, 짝어보이기 위한 노력 에타를 통한 학생문화 이해 조언, 적응, 공존
간호사가 되기 위한 성장의 기회	배움의 즐거움	학업의 즐거움
		학업을 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함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기, 만족감
	배움에 대한 열망	사람들의 부정적 반응에 대한 오기
		학업과정에서의 끈기와 인내, 열의, 욕심 신에게 의지하여 매달림
목적지를 향한 발걸음	배움을 위한 노력	공부에 대한 부단한 노력, 비대면수업 활용
		학업상황에 대한 반성, 학습방법 수정
		커뮤니티를 통한 학습정보 획득
	발전하는 나의 모습	학업성취, 자아정체감 형성
		안정감, 기쁨 긍정적인 삶의 변화, 활기
꿈꾸는 미래	꿈꾸는 미래	졸업, 간호사 면허증, 해외봉사, 취업성공
		꿈, 목표, 희망

경험에 대해서 속성, 범주, 주제로 분류한 범주화과정은 표 3과 같다.

간호사가 되기 위한 여정의 시작

전문직을 요구하는 현실

여성만학도의 대학진학결정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의 성별 분업구조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고용률은 20대 후반에 가장 높아지다가 출산과 양육의 시기인 30대에는 감소하고 이후 40대에 다시 증가하는 M자 패턴의 양상을 나타내는데, 여성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여 일정기간 자녀양육을 한 뒤, 자녀가 성장하면 다시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함을 보여준다(김주영, 2010). 연구참여자들은 적절한 임금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성과 사회보장성이 담보되는 간호사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고, 고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삶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대학진학을 고려하였다. 또한 이들은 간호학과에 진학하기 전 생업에 종사하며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직장생활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사건들이 간호학과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간호조무사로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정규직 간호사와의 직장 내 차별이나 임금에서의 격차로 인해 갈등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로 직업을 전환하고자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령화 사회니까 그거 생각하고 왔죠. 졸업하면 한 15년, 길게는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 싶어서 온 거예요. 병원에 간

호조무사 하면서 간호사들 보면 의사지 시 받아서 환자 도와주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의사 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간호사가 파워가 있잖아요. 나도 저런 모습으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가 대우에서 차별받는 느낌이니가. 병원에 따라 다르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해요 (연구참여자 2).

내가 도대체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내 밥벌이는 내가 계속 해야되는데. 그걸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보니까 전문직이고, 나이들어가지고 갈 수 있는 전문직이 간호대가 아무래도 좀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여자들은 시집가면 그만뒀야지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갑자기 꺾이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 조금 슬플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전문직은 그런 분위기가 덜 하다보니까 보통의 회사보다는 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연구참여자 5).

15년을 간호조무사를 했어요. 했는데 간호사들의 행동이랑 언행이라던지 관계성 이런 걸 보니 참 못됐더라고. 그래서 인성이 왜 저러지 이러면서도 아 나도 공부 좀 해야겠다 그런 충동을 느껴서 (연구참여자 7).

도전하는 나

연구참여자들의 학창시절에는 가정형편 때문에 교육에 대한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당시 여학생들은 대체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취직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으며, 대다수가 고등교육의 기회에서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고등교육에 진입하는 여성은 소수의 중·상류층에게만 해당되었으며, 계급에 따라 성별 대학진학률이 달리 나타났다. 대학교육 기회의 불평등 정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났으며(김영화, 2002; 이기연, 2006), 이는 대학 진학에 있어 중·상계층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비교적 약한 반면, 가정형편이 안 좋은 경우 아들은 대학에 보내려하고, 딸은 대학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연구참여자들 역시 어려운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학업적령기를 넘겨 뒤늦게 다시 대학에 입학하는 양상을 나타냈으며, 어린시절 꿈인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간호학과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늦은 나이에 간호학과에 지원하기를 주저하며 망설이고 있을 때 주위에 늦은 나이에 간호사가 된 이들을 통해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들을 통해 용기를 얻고 도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거친 후 간호사를 위한 진로를 결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가 되는 게 어렸을 때 꿈이었는데, 가정형편 때문에 못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나도 한번 도전을 해서 공부를 해보자 해서 왔어요. 이러나

저러나 꿈인데...한번 이뤄는 보자. 나이가 이렇게 돼도 (연구참여자 1).

졸업하고 캐디를 하다가 S중공업에 자리가 나서 거기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좀 괜찮았는데 점점 이게 사무직이 안 맞더라구요. 그래서 그만 두면서와 진짜 나에게 맞는 걸 찾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해외로 갔는데. 거기에 언니가 있었는데, 나이 50살에 졸업을 해서 병원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와 내가 너무 우물 안의 개구리였나. 이 생각을 했어요 (연구참여자 4).

만학도를 위한 입시전형

연구참여자들이 재학 중인 대학은 정원의 특별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졸자 전형을 두고 있다. 수능 등급과는 관계가 없고 전적대학의 성적과 면접만으로 입시를 진행하므로 상대적으로 다른 전형에 비해 경쟁률과 진입장벽에 낮기 때문에 여성만학도들이 간호학과에 도전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같은 입시정보를 병원에서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되거나 간호학과 진학을 목표로 두고 스스로 수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수능을 준비하다 정리하고 대학전형을 보고 지방으로 내려온 경우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만학도 전형이라고 불리는 대졸자 전형 제도에 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만학도를 위한 특별전형이 아니었다면 간호사로서의 꿈과 재취업의 기회에 도전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만학도 전형은 고등학교 성적으로 그걸 해요. 성적이 좋지 못해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나하고 같이 병원에서 일하던 애 한 명이 지금 3학년이에요. 개가 샘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기 대학에 한번 넣어봐라...그래가지고 넣었거든요. 근데 합격이 된 거예요 (연구참여자 1).

제가 원래 수능공부를 했어요. 수능을 도저히 못하겠어요. 근데 되고 나서 수능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합격 문자 보자마자 울었어요 엄마랑. 학교가 잘 구체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나를 살려주는 느낌? (연구참여자 4)

수능을 두 번 봤는데, 그쪽 지역에 맞는 수능 전형으로 갈려고 두 번을 했는데 안되겠더라구요. 우리 올케가 공부를 여기서 먼저 해 가지고. 올케의 영향이 좀 있었죠. 저도 처음부터 합격을 한 거는 아니고 대기자로 합격했어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너무 좋았죠. 나한테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연구참여자 9).

응원에 힘입음

여성 만학도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지원과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연구참여자들 역시 공통적으로 가족들의 일관된 지지나 지인들의 응원이 없었다면 대학진학이 어려웠을 것이라 보

았다. 특히나 기혼 여성의 경우 남편의 정서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기혼인 연구참여자들 경우 부모보다 남편의 역할이 대학진학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부모,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는 대학입학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이와 더불어 지인들의 응원과 긍정적인 피드백 역시 연구참여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자원이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이같은 응원에 힘입어 입시에 도전하였으며, 그 결과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기쁨을 표현하는 형태는 개인마다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대체로 배우지 못한 한이 눈물로 승화되어 표현되었으며, 대학입학이라는 행복감과 더불어 다가오는 대학생활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함께 드러나기도 하였다.

신랑은 가라. 해라. 하고 싶을 때 해라. 얼마든지 해줄게. 빛을 내서라도 해줄게 했었고. 애들도 좋아했었고 (연구참여자 2).

주변에 친구들도 간호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자기네들한테도 너무 잘 맞아서 저한테도 추천을 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컸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6).

모두 다 가족들이 너무 이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그만둘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아저씨도. 지금 회사다니는데 해봐라. 그

래 할 수 있으면 시작해서 해봐라 이라고. 친절엄마도 아이고 니가 그래 뭐 한 다니까 해봐라면서. 또 언니가 보건직 공무원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해라고 (연구참여자 7).

낮선 곳의 이방인

차가운 시선

만학도에 대한 학내의 차가운 시선과 선입견은 연구참여자들의 대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편견과 오해 속에서 학과공부와 학교활동을 열심히 해도 늦은 나이에 학교에 왔다는 이유로 조별과제와 같이 공동으로 학업을 수행해야 할 경우 무시받기 일쑤였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은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하기가 어렵고 한 공간에 있어도 외딴 곳에 홀로 있는 것 같은 심리적인 거리감을 느꼈다. 또한 중년 여성 만학도의 경우 학과공부나 실습에서 다른 학생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여러 가지 갈등상황과 문제들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30대 초·중반의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학업에 대한 결과나 성적이 좋을 경우 학생들에게 견제와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학내 구성원으로서 동급생뿐만 아니라 교수로부터의 차별적인 대우 역시 연구참여자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해당 교과목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고 대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간관계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애들이 아 나랑 이야기 하기 싫은가보구나.

이런 눈치가 막 보여요. 의사소통하기도 참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또 물어보면 저 언니는 왜 저런 걸 몰라? 이런 느낌? 갑자기 발표를 하라고 그러면 말을 못하고 하니깐 그냥 무시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걸 많이 느끼면서 자존감이 많이 약해지고 (연구참여자 3).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다시 학교 유턴하는 언니들은 놀만큼 다 놀았고 즐길만큼 다 즐기고 다시 온 거다. 애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애들이 그런 식으로 인식하더라구요. 그래서 나이 많은 언니들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런식? 이해할 수 없어요 (연구참여자 4).

관계맺기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중년의 여성 만학도로서 자녀와 같은 또래의 학생들과 함께 대학생활을 하면서 세대차이로 인하여 20대 젊은 학생들이 가진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에 관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향은 집단주의 문화와 예의 범절을 중시하는 기성세대인 연구참여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세대차이에서 오는 이러한 현상들과 더불어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과의 관계형성에서 어려움을 보이기도 하였다. 혹여나 조별과제나 기타 대학생활에서 자신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서기를 두려워하였다. 이

는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부담스러운 마음과 두려운 감정을 동반하여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젊은 애하고 같이 쓰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요즘 애들은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참고 참고. 그래 시간은 간다하고 했어요. 내가 웬만하면 룸메가 있으면 거기 안 있어요. 불편하니까. 애가 불편하니까 나도 불편하고. 너무 세대차이가 나니까. 애가 살아가는 방식하고 내가 살아온 방식이 물론 다르죠. 나이 텀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이해라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1).

나는 어른처럼 보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말 한마디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애들한테. 애들도 딱히 그렇잖아요 솔직히. 언니를 누가 챙기고 싶어하겠어요. 낄 틈이 없어요 애들한테 (연구참여자 4).

포기하고 들어왔어요.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거의 20살? 가량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재네도 재네 나름대로 친구들하고 친해야지 뭐 이러면서...(연구참여자 5).

불편한 시설과 제외되는 특혜들

연구참여자들은 만학도로 대학에 다니면서 학교의 제도나 시설적인 부분에서 부당함과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의 불만요인을 살펴보면 학교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20대의 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만학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근로장학이나 어학연수의 부분에서도 만학도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학급의 분반에 있어서도 만학도의 배정에 있어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학급당 인원수에 차이가 있어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더불어 만학도에 대한 학습지원이 부족하며 수업 커리큘럼이나 학사운영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한 점도 지적하였다. 간호학과와 특성상 일정 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졸업요건인데, 코로나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봉사활동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데다 만학도를 바라보는 기관 측 사람들의 시선 또한 곱지 않아 봉사활동 제도에 대한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보았다. 학교의 시설적인 측면에서 학교식당 이용이나, 휴게공간 부족, 교통 불편 등도 이야기하였으나, 이는 의례적으로 대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음직한 학교의 불만사항이라고 판단되어 만학도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시설적인 측면 외에도 연구참여자들은 전문대학교의 간호학과이다보니 4년제 국·공립 대학이나 사립 종합대학과의 수준차이를 한계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똑같이 돈을 받고 있는데, 기회가 안되는 건 있죠. 예를 들어 성적을 잘 받아도 저희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으니까 외국을 나가고 싶어도 찔려요. 학교에서 안

보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다 커리어가 되니까. 애들은 저기 빅5 같은 데 갈 수 있잖아요. 스펙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그쪽으로 응시를 못하고 하니까 학교 측에서는 손해가 나잖아요. 그런 기회를 안줘요 (연구참여자 3).

저는 만학도를 조금 한쪽으로 몰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반은 언니들 막 7명씩 같이 몰려다니더라구요. 근데 저희 반은 3명 밖에 없었어요. 조금 더 인원이 있었으면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같이 뭉쳐야지 뭔가 힘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연구참여자 4).

다른 학교는 대졸자 전형 이런 걸로 장학금 같은 거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리고 어학성적으로도 장학금을 주는 학교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저희 학교는 100프로 환급도 아니고 50프로인가 40프로 정도만 환급해 주는 거? 그런 게 장학제도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 (연구참여자 6).

학생이기를 방해하는 걸림돌

배움의 대가

여성 성인학습자의 경우 가사와 양육까지 담당해야 하며, 역할의 중첩으로 인해 학업과 가정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은혜경, 조영미, 전선미, 2014). 연구참여자들 역시 여성 만학

도인 성인학습자로서 가정에서 어머니자 아내로, 더불어 자식으로서의 역할까지 도맡아서 해내야 하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적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기존에 해오던 가사일들이나 자녀 돌보기에 전념하기가 어려우므로 마음 한켠에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역할갈등을 해소하고 학업에 조금 더 열중할 수 있게 미리 시간계획을 철저히 관리하여 가정에서나 학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이로 인해 피로감을 자주 경험하였으며, 일과의 대부분을 학교와 가정일에 쏟아보니 개인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 아쉬움과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구참여자들은 학업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중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기혼인 연구참여자의 경우 수입원의 차단으로 인해 배우자가 홀로 경제적 부담감을 짊어지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30대 초·중반의 미혼 연구참여자의 경우 학업을 위해 모아둔 학비와 생활비를 지출해나감에 따라 혹시 모르게 발생할 경제적인 문제에 관한 불안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제가 공부를 해야지 하다가도 그게 안되는 거예요. 신랑은 출근을 하잖아요. 오전은 학교만 오지 집에 있는 입장인니까. 그러면 가야 되는 상황이 많아요. 저 밖에 없다보니까 도움을 많이 요청해요. 특히 부모님들. 부모님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 같아요. 힘들죠 (연구참여자 2).

제가 4년을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아무래도 자취를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게 돈 같은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제일 힘든 건 돈 (연구참여자 4).

제가 키우는 우리 애들을 제가 학교를 안다니고 여유가 있었으면 훨씬 더 잘 돌봐주고 신경써줬을텐데 그거를 못하니까 죄책감? 그런게 들고 (연구참여자 8).

남편이 도와줄 형편이 안되거든요. 제가 혼자서 벌어가지고 생활해야되니까 아 직장을 다녀야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제가 지금 청소알바를 다녀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학교 다니는 것도 좋아요 (연구참여자 9).

늦은 나이 체력적 부담

학령기를 지나 다소 늦은 나이에 대학공부를 시작하다보니 연구참여자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체력적인 소모를 많이 경험하였다. 대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건강과 체력을 손꼽을 만큼 이들에게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며,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학업을 이어나가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였다. 연구참여자들과 대학생활을 같이 하던 만학도들 가운데 예상치 못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학교를 휴학하거나 학업을 중단하고 그만둔 사례가 있어 더욱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간호학과와 특성상 학업과 교내의 실습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 체력관리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년의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갱년기를 겪게 되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며 수업 도중에 뛰쳐나가고 싶다는지, 급격한 정서변화로 인한 우울감 등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신체적 증상 외에도 대학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교내행사에 참여하면서 자식같은 학생들과 같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창피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젊은 시절에 대학에 다니지 못했던 상황을 회상하면서 더 일찍 공부를 시작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자책하기도 하였다.

지금 갱년기거든요 갱년기니까 수업시간에 확 오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게 호르몬 자체가 조절이 안되니까. 그게 너무 그래요. 제일 지금 큰 거예요 나한테. 수업시간에 뛰쳐 나가고 싶어요. 특히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

체력이 안 따라주는 상태에서 공부를 같이 하니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계속 링거 맞고 항생제를 한 3주 정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못 살겠는 거예요. 이게 피로가 켜어가지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관계야 뭐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도 다닐 수가 있는데 건강은 해치면 다닐 수가 없어요 진짜. 나이가 드니까 제일 중요한 게 건

강이다 (연구참여자 3).

학업이라는 난관

학업적 한계에 직면

대부분의 만학도에게 학업은 그 자체로 극복하기 어려운 도전이며, 과거 비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중년층의 만학도 대부분은 기초학력 부족으로 인해 대학에서의 학업을 따라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채재은, 2008). 연구참여자들 역시 오랜기간 동안 교육의 단절로 인한 교과공부의 어려움과 익숙하지 않은 평가방식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는 데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억력의 감퇴로 인한 암기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학업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대비하여 좋지 않은 성취 결과로 늘 아쉬움과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더군다나 학사시스템을 비롯하여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LMS를 통한 온라인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어, 학업에 대한 어려움과 더불어 디지털 매체 사용에 대한 부담감이 더해져 학업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욕구와 스트레스를 동반한 걱정,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들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한다고 하는데. 어쩔 때는 내가 하는 공부방식이 잘못 됐나? 그런 생각도 해본 적 있고. 교과내용은 너무 어려워요. 교수님이 중간중간에 의학용어를 말씀하실 때 하나라도 알아들으려고 막 애를 써요. 내가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간호사

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어려워니까 우리를 그렇게 봤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1).

LMS 사용하는 게 처음에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ZOOM 사용하는 것도 아예 몰라가지고 항상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되고 그랬었거든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애들은 빨리빨리 잘하는 것들을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못 따라가니까...(연구참여자 3).

학업에 대한 염려

간호대학생은 이론수업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교과과정과 과중한 학습량, 국가고시 등으로 인해 타과학생에 비해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수준이며, 최근 간호학과와 증가로 인해 취업경쟁이 과열되어 이로 인한 학업스트레스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민소영, 2006; 박진화, 이은경, 2016; 신소홍, 2016). 연구참여자들 역시 간호학과 재학생으로서 머지않아 곧 다가올 국가고시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학과공부와는 달리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학사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더라도 국가고시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간호사로서의 자격은 물론이고 의료·보건 계열에서의 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걱정이 큰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또한 이들은 늦은 나이에 다시 재취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상급병원이나 대형병원에 취직 시 나이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다.

교수님이 너는 나이가 많아서 안된다고 그냥 그어버리시더라구요.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내가 공부를 해야되는게 맞나? 이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희는 서울에는 아예 못 가요. 그냥 서류탈락인 거죠. 서울은 나이 때문에 아예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 받아주는 데가 뜨문뜨문이고. 그런상황이 조금 불합리하다? 내가 4점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안 했어요 공부. 그냥 하기가 싫더라구요. 집중도 안되고 (연구참여자 4).

걱정되는 거는 이제 시험. 제일 먼저 국시. 한 번에 합격해야 된다. 무조건 한 번에. 그리고 병원에 취업해야되는 거. 교수님이 나이가 많아서 가는 길이 좁다고 현실적으로 말씀해주니깐 거기에 대해서 꼭 합격해야되는데 꼭 들어가야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마냥 들다보니깐 좀 불안한 거? (연구참여자 5).

나와 같은 사람들과의 동행

서로 의지하고 돕기

전문대학교의 간호학과는 학생 수가 많고 이수해야 할 교과목이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와 같이 학년별로 학급을 나누어 운영하는 양상을 보인다. 연구참여자들은 학년을 올라가게 되면 배정된 학급에 자신과 같은 만학도가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이들은 다른 만학도들과 같은 반이 되기를 희망함과 동시에 만학도가 부재할 경우 대학생활을 홀로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많았다. 만학도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이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만학도들 간의 관계형성에 있어서도 훨씬 편안하고 친숙하게 다가가고 받아들이며, 이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같은 학급의 학생을 넘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의지하는 대학생활의 동반자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학업 상황에서도 교과목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부 방법이나 학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대학 졸업과 간호사로서의 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하고자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 연령대가 제일 편하고 그렇죠. 서로 의지도 되고. 이런 만남이 없었다면 지금 너무 힘들 것 같애.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주위에서 보면 없는 분들은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반에서도 혼자고. 의지할 데도 없고. 제일 좋은 거는 학습적인 것도 그렇고 정서적인 것도 그렇고 큰 도움이 되죠. 관계가 (연구참여자 2).

정서적인 지지를 되게 많이 해줘요. 공부야 뭐 하다가 성적이 못 나오면 어쩔 수 없는거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힘들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언니랑

이야기를 하면 공감을 해주시고 또 그럴 때는 니가 이래이래 하는게 좋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 해주시고. 그래서 좋아요. 언니들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3).

만학도가 바라보는 만학도

연구참여자들은 자신과 같은 만학도에 대해서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중년여성 만학도의 경우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30대 초·중반의 만학도에 관해 결혼 유무나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따라 공통의 주제를 형성하거나 친밀감을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가 성인인 50대 이상의 만학도의 경우 학령기의 어린 자녀를 둔 만학도를 대할 때마다 자신이 더 늦은 나이에 학업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가정을 돌보는 부분이나 양육에서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여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위안을 삼고 안도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30대 연령층의 만학도의 경우 자신보다 삶의 연륜이 월등히 묻어나는 만학도에 대해 늦은 나이임에도 누구보다 열심히 학업에 집중하는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진다고 하며 이들에 대한 존경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같은 만학도라고 하더라도 연령에 따라 서로에 대해 바라보고 인식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면학실에 제일 먼저 와서 하는 언니들 몇 명 있거든요. 그런 언니들 보면 되게 부럽고 그래요. 저녁시간에 와가지고 계속 하루종일 면학실에 계시고. 같이 저녁

먹고 간식먹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데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참여자 5).

어떤 친구들은 또 아이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아이가 있는데도 하는데...거기서 내가 여유를 갖는거죠. 남편보고 챙겨먹어라 이러면 되는 건데. 아이있는 애들은 밥 챙기지, 옷 챙겨야지. 아침에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위로를 삼고 하는거죠 (연구참여자 7).

공존하는 방법 터득하기

학교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내적인 노력들 같은 강의실에서 같은 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생활하다보니,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어린 학생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연민의 감정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성적이 곧 취업과 연결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학생들은 단 1점이라도 더 좋은 점수를 받고자 안간힘을 쓰는 모습들이 부모와 같은 입장의 어른으로서 마음 아프게 다가오기도 하였다. 또한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20대 학생들이 가진 고민이나 생각을 이해하고, 이들의 긍정적인 면모들도 함께 느끼게 되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학생들을 바라보았던 부분이나 이들과의 관계적인 측면에 대해 되돌아보고 반성하였으며,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학생들과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대인관계나 대학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나름의 방식으로 해소해나가면서 학교의 온전한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요즘 애들에 대해서 참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배우는 것 같아요. 안그러면 좋겠는데 하면서도 그냥 아 또 저 세대는 저런 식으로 나아가는구나 하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맨날 애들이 점수 때문에 목 매달고 하는데...점수 좀 후하게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해요. 애들이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한 거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거를 못하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성적주의잖아요 (연구참여자 3).

저는 진짜 말도 막 하고 이런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애들이 생각이 깊네? 약간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냥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니까 사려가 없고 배려가 없고 이런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생각이 깊고 똑똑한 애들도 많고. 생각을 깊게 잘하는 애들이 많더라구요 (연구참여자 8).

학교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대외적 노력
연구참여자들은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과의 사이에서 애매한 호칭문제로 불안하거나 난감한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언니나 이모와 같은 친근감 있는 호칭을 사용하며 서로에 대한 경계를 허물고 친밀감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옷차림이나 외양적인 부분에서도 학생들에게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가기 위해 젊어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으며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를 통해 학생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였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하

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한편으로는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자의 역할도 수행해나가면서 유대감을 형성해나갔다.

성인학습자인 만학도와 일반대학생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대학생이 성인학습자에게 수용적이고 지원적인 태도를 대하면 성인학습자들의 대학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Faust & Courteney, 2002; Kaworm, 2005), 일반대학생이 적대적, 이질적, 비수용적인 태도로 대하면 대학생활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Boyer, 1974; Kaworm et al., 2000). 선행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만학도와 학생들 간의 긍정적인 상호관계 형성은 연구참여자들의 대학생활을 돕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애들하고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학교 와서 내가 먼저 인사하고. 일단은 안면을 터야 애들한테 도움도 받고 서로 서로. 애들이 다가와 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막상 애들 사귀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았어요. 주위에 애들한테 차라도 좀 사주면서 말도 좀 걸고 이래하다 보니까 뒤에는 좀 힘들긴 해도 애들 도움도 받고 서로 이렇게 하니까 훨씬 다니기가 수월하더라구요 (연구참여자 2).

마음맞는 동생들을 만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 고마워서 제가 집에 초대해가지고 밥을 해먹였어요. 진짜 너무 착해가지고. 밥을 해먹여도 아깝지가 않고 뭘 자꾸 퍼줘도 애들한테 아

갑지가 않아요. 너무 예뻐요. 내가 애들한테 더 밝게 하고 하니까 애들도 나를 좋게 봐주는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4).

에타에 자기 고민 상담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부모와의 관계에서. 진짜 그럴 때 보면 아 진짜 힘든 애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가끔씩 댓글을 달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연구참여자 9).

간호사가 되기 위한 성장의 기회

배움의 즐거움

간호학과에 재학하며 학업을 수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교과과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무과학으로 학문의 특성상 실무를 중심으로 방대한 교과내용을 학습해야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수업내용의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학업에 대한 만족감을 경험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 중 40대 이상의 만학도의 경우, 중년기 여성으로서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뚜렷한 목표없이 삶을 살아왔지만 대학에 진학하면서 어린시절 못 다 이루었던 학업에 대한 아쉬움과 한을 해소하고 학업을 통해 간호사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 더불어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4년이라는 대학생활 기간 동안 누

구도 아닌 오로지 자신으로서 집중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임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무사 때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됐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만 머물고 큰 발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채용이 안되더라도 진짜 공부한 거에 만족을 하자.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배우는 게, 알아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연구참여자 2).

전체적으로 일단 공부하는 게 저는 너무 재미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사실 학업부진? 이런 애였어요.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거를 외워서 공부를 했지 응용은 하나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응용도 되고 그냥 공부자체가 너무 재미있어요 (연구참여자 4).

배움에 대한 열망

20대 초반이 대다수인 대학의 환경에서 만학도로 이들과 함께 학업을 계속해 나가기란 쉽지 않다. 특히나 학업상황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연구참여자들은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이를 헤쳐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끈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25세에서 65세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끈기와 최종학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교육연한을 통제하고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끈기 수준이 높아진다는 점을 보고하였으며, 연령이 높아지면

흥미유지와 노력지속 역시 높아진다고 보았다 (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Lim, Ha, & Hwang, 2016). 이처럼 연구참여자들도 만학도로서 학업에서 끈기와 인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중 종교를 가진 일부 참여자들은 신앙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려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제 나이 때는 다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으니까...사람이 독해지는 거 있잖아요. 무슨 시련과 고난이 와도 내가 해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위낙 주위에 내가 이런 학교 온다는 거를 알음알음 다 알기 때문에 포기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꿈이어서 왔으니까. 많이 어렵겠죠. 3학년 올라가면 더 어렵겠지만, 시간은 흘러갈 거니까 (연구참여자 1).

저는 성당에 가서 기도합니다. 학교 마치고 바로 성당을 가요 저는 거의 매일 그렇게 하는 거죠. 내 스스로 내가 못해 내니까 어쨌든 참 바보 같고. 진짜 내가 항상 그래요. 이거는 기적인데 이걸 뿌리치면 안 된다. 하자하자 이러면서 신앙의 힘으로 하는 거죠 (연구참여자 7).

배움을 위한 노력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학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바탕으로 학업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학업에 몰입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성인학습자들의 경우 아동과는 달리 자신의 욕구와 자아실현을 위한 학습을 추구하기 때문에 학업에 참여하는 동기

에 따라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 (박일탁, 2010; 윤정아, 2017; 한상훈, 2003). 연구참여자들 역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학업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학업에 대한 욕구와 동기가 매우 높고, 학업수행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자신의 학업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익명의 커뮤니티를 통해 학과공부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재조직하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들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학습을 구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예전에는 책을 한번 싹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무래도 좀 더 꼼꼼하게 보려고 하는 스타일? 책을 엄청 여러번 보거든요. 시험 기간에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많이 봐야 그제서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야 암기가 되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연구참여자 5).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을 했잖아요. 실제 대면도 좋고 대면하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을 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두 가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복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구요 (연구참여자 9).

목적지를 향한 발걸음

발전하는 나의 모습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미뤄두었던 수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자신이 주체가 되는 자기주도적인 삶으로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젊은 나이의 학생들과 함께 대학생활과 대학문화를 공유하면서 더 활기차고 생기있는 모습으로 변화해간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성인여성학습자들의 교육적 경험이 이들의 정체성 변화에 미치는 내적 의미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개인의 정체성은 자기성찰, 자기실현, 사고의 전환을 통해 주체적인 객체로 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김혜숙, 2003). 연구참여자들 역시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사회적 상황들과 대인관계를 대학생활을 통해 새로이 경험하고 배움으로써 사고나 가치관의 전환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곧 삶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체적이고 발전된 형태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생을 살면서 제일 재미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도 생겼고, 흥미도 있고 뭔가 목표 같은 것도. 다 똑같은 거지만 제일 재미있어요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시간이 빨리 가기는 하는데, 보람찬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막막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가는 길은 고된데 행복해요 (연구참여자 4).

지금 이 공부는 사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이들한테 신세질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찾는 거

고. 그럼으로 해서 내 자녀가 배필을 만나더라도 멋있지 않습니까 (연구참여자 7).

꿈꾸는 미래

간호사가 되기 위해 대학생활을 묵묵히 해 나가면서도 연구참여자들은 졸업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만학도로서 늦은 나이에 학업을 시작한 만큼 대학생활은 힘들고 어렵지만, 졸업하는 순간을 떠올려보면 마침내 해냈다는 기쁨과 안도감, 자신에 대한 뿌듯한 마음과 행복감이 교차할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간호사라는 꿈과 더불어 보건의료, 혹은 수간호와 같은 관리자로서의 목표가 뚜렷하였으며, 후에 해외봉사나 의료인력이 필요한 곳에 꼭 도움을 주겠다는 희망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또한 성인인 자녀를 두고 있는 중년의 연구참여자의 경우 자녀에게 더 떳떳하고 멋진 엄마가 되겠다는 포부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교회에서 의료봉사를 나가요. 딸하고 나하고 결심한 게 뭐냐면 우리 졸업하고 휴가를 넉넉하게 받아서 의료봉사를 가자. 그러니까 어 엄마 그렇게 꼭 하자고... 너무 하고 싶어요. 나는 가서 내가 아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엄마도 나중에 수간호가 되고, 너도 열심히 해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1).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싶어요. 제가 종합병원에서 간호조무사는 해봤지만 간

호사는 안 해봤잖아요. 정 안되면 저는 보건소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응급실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연구참여자 2).

2. 전문대학교 간호학과 여학생들의 대학생활 경험의 구조

전문대학교 간호학과 여학생들의 대학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경험을 구조화하였으며 이는 그림 1과 같다.

대학이라는 공간은 간호학과 만학도들에게 제2의 삶을 제공하는 기회의 장으로 존재하였으며, 대학 진학 동기가 각각 다르더라도 간호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환경적인 조건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기회의 장이라는 영역 아래 간호학과 만학도의 대학생활 경험은 이곳이 자신의 미래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

하였다. 대학생활 시작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간호학과로의 진학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의 시간을 가졌으며, 입학 당시의 설레임과 기대감은 온데간데 없이 학교 구성원으로부터의 냉담하고 낮은 시선 속에서 마치 이방인처럼 이질감을 경험하였다. 또한 가정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기억력이나 체력적 한계에 직면하는 것은 만학도들에게 있어 학생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었다. 이처럼 불리한 상황적 여건 속에서도 학교 생활을 꾸준히 지속해나가며 학업상황에서 늘 학업적 어려움과 고단함을 마주하지만 자신과 같은 만학도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학업수행을 도우며 함께 걸어가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학생이나 교수로부터의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며 이들과 어울리며 공존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갔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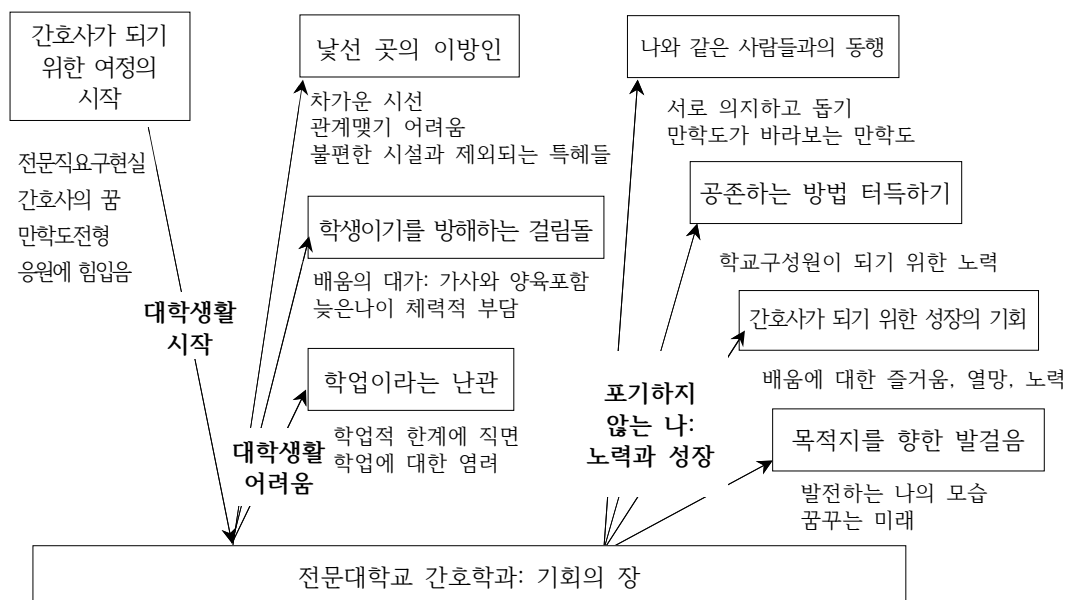


그림 1. 간호학과 만학도 여학생들의 대학생활 경험의 구조

처럼 간호학과 만학도들의 개인 내·외적인 노력들은 배움에 대한 열망 및 즐거움과 더불어 간호전문인으로서 성장하는 발판을 제공하였으며, 자아정체감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다가올 미래의 대학 졸업과 간호사라는 목적지를 향한 발걸음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의 하나인 문화기술지 연구를 통해 간호학과 만학도의 대학생활 경험에 대한 이해와 탐색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전문대학교 간호학과에 진학한 여성 만학도들은 공부를 선택한 이유로 자아실현 및 생계유지, 외부의 지지나 자극, 전문성 개발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의 간호학과 진학동기는 전문직으로서 안정된 고용보장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학도의 대학진학 동기가 자기실현 욕구, 전문능력의 개발 필요, 학습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난 연구(이정희, 안영식, 2007), 성인대학생의 학습동기가 취업, 보상과 같은 외적 동기와 대졸이라는 사회적 지위 획득을 통한 자기실현이라는 연구(홍아정, 2010)와 관련된다. 선행연구에서처럼 간호학과 만학도의 대학입학 동기는 일반 대학의 만학도들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호조무사로서의 근무이력이 대학진학 동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년에

간호사가 된 사람들을 통한 동기부여 등은 간호학과 만학도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간호사가 되는 과정이 힘들고 고단하지만 늦은 연령에 비해 도전할 만한 전문분야의 하나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간호학과 만학도의 간호사로서 당당하게 취업에 성공하여 의료전문인으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수와의 진로상담이나 취업시장에서의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초·중반의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수도권의 대형병원이나 지방의 거점 병원에 취업하기를 기대하였으나, 20대 초반의 자대병원 출신의 신규 간호사를 선호하는 병원 내 문화로 인해 나이제한으로 인한 취업의 문이 단절될 것에 대해 염려하였다. 반면, 40대 이상의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상황을 반영하여 상급병원으로의 취업을 희망하기보다는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의 병원이나, 요양시설의 창업 혹은 보건교사로서의 진로를 희망하기도 하였다. 간호학과 만학도들은 부푼 기대를 안고 대학에 입학하였지만, 졸업 후 마주하게 될 취업의 장벽 앞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다. 따라서 학업과 취업의 연장선에서 만학도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도 신규간호사의 채용에 있어 형평성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연령에 따른 채용기준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간호학과 여성만학도는 학생들과 교수들의 부정적인 인식 속에 학내 소수자로서의 소외감과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간호학과 입학 시 일반학생들과의 입시 전형이 달라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인식 하기에 자신들에 비해 쉽게 간호학과에 진학 하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 학과성 적이 곧 상급병원의 취업으로 연결되는 취업 구조상 학과 내 학점경쟁이 심해 만학도는 20 대의 학생들에게 경쟁자로 인식되게 된다. 또한 전반적인 학사운영의 커리큘럼이 일반 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수업 에서 실습이나 조별 활동시 세대간의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부재가 소외감의 원인이 되었다. 심리적으로 불편한 환경적 조건 속에서도 만학도들은 학내 구성원으로 학생들과 동화되기 위해 많은 개인내적인 노력을 기울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젊은 세대들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관해 생각해보기도 하고, 자신이 가진 부정적인 인식이나 고정관념을 변화시켜 새로운 관점으로 학생들을 바라보고자 노력하였다. 이들에게 교우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불신은 대학생활에 부적인 영향을 주지만(장성화, 천영희, 함성수, 2014), 일반학생들의 수용적이고 지원 적인 태도가 만학도의 대학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Faust & Courtney, 2002) 는 만학도의 대학생활에 있어 일반학생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한다. 일반학생과의 관계형성 및 상호작용의 정도는 만학도의 대학생활에 영향을 미치므로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을 도모하고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만학도와 일반학생이 공존하는 학습현장에서도 학생들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교수지원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계기로 학생들은 다양한 생각과

관점의 차이를 공유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주적인 대학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참여자들은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대학에 다니면서 많은 양의 학습내용을 소화하고 대학생활에 집중하느라 가정 내에서 주어진 역할을 예전처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워 가정 내에서 역할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엄마로서 아내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는 직장생활을 하며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나 학교에 입학하면서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전적으로 배우자의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비의 부담과 가족의 물이해와 비협조, 시간적 제약, 정보의 부족 등은 실제 성인학습자들의 학습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이정희, 안영식, 2007), 간호학과 만학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 내에서의 심리적인 갈등은 대학생활을 중도에 포기하게 하는 잠재적인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대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의 지지라고 진술하였다. 학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배우자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나 시간적 제약에 따른 자녀양육 및 가사분담은 가족들의 이해와 배려 없이는 전적으로 책임을 저 나가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학진학으로 인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 만학도들이 처한 상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측에서 웹 기반의 실시간 수업을 비롯한 동영상 수업과 같은 비대면 형식의 수업형태나 혼합수업의 방식을 교과과정과 연계한다면, 간호학과 만학도들이 가정 내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하면서 학업에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리라 판단된다. 또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의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과 심리지원서비스와 같은 지원책을 제공한다면 간호학과 여성 만학도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성인학습자에 대한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연구참여자들은 간호학과의 만학도로서 전공과 실습을 병행해 나가야 하는 교육과정에서 암기력이나 공부방법에 한계를 느껴 학업적인 어려움과 좌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전공 만학도가 학부과정에서 겪는 학습에 대한 어려움을 보고한 연구(김진숙, 조남정, 최은미, 하혜숙, 2013), 만학도들은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회복하는 능력은 높으나 대학공부를 잘하는 능력은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박진영, 김누리, 2009)와 관련된다. 간호학과의 경우 학업에 있어 암기량이 방대하고 특히나 만학도의 경우 학습과정 자체가 심리적 부담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들이 직면한 학업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하는 학교 측의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체계적인 학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나 또래와의 멘토-멘티 활동을 비롯하여 학습컨설팅, 학습전략에 대한 워크숍, 학업스트레스 예방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학과 만학도들은 대학생활에서 20대의 학생들처럼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고 만학도에 대한 이해와 정서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대학생활을 잘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는 같은 학급에서 자신과 같은 만학도의 존재유무가 대학생활을 좌우할 영향요인이 되었는데, 젊은 학생들과 또래집단으로서 어울리기가 쉽지 않고 개인이 처한 환경적 조건이나 연령에 따른 사고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연구참여자들이 재학 중인 간호학과의 경우 작게는 2명에서 많게는 5명의 만학도들이 각 학급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들은 자신이 속한 학급의 만학도 뿐만 아니라 다른 학급의 만학도들과도 친분을 맺고 교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업에 대한 어려움을 비롯하여 학교 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오는 고충을 털어놓으며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관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만학도 간의 관계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혼인 여부나 자녀유무에 따라 어울리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연구참여자들 중 40대 이상의 중년 여성인 경우 미혼인 여성만학도보다 기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만학도와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이는 가정과 자녀양육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잘 형성되고, 가정에서의 역할로 인해 학업에 온전히 몰입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기 때문이다. 대학생활에서 일반학생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도 중요하지만, 만학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간의 소통과 배려는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확

인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 중 대부분은 중년기의 여성으로 과거 한국사회가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성장정책을 실시하던 시절에 태어나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학령기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채 가족을 위해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결혼 후에는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주부로서의 역할에 몰입하느라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성인여성 학습자들은 학력과 학벌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로부터 오는 학력차별을 경험함으로써 자아상실감을 느끼고(김철호, 2015), 저학력으로 인한 위축감과 열등감에 시달리며 무시와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종주, 2002; 이기연, 2006). 연구참여자들 역시 여성 만학도로서 성인여성학습자들과 같은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경험하면서 대학에서의 학업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고 자기 성장을 통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였다. 이는 대학생활 경험을 통해 만학도의 생활만족감이 증가하였다는 연구(권정해, 최은희, 최성열, 2015), 여성 만학도들이 대학공부를 통해 자존감의 향상과 자아정체감 회복의 결과를 나타낸 연구들과 관련된다(김정민, 최연실, 2014). 자아정체감과 관련하여 발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중요성에 관해 언급할 뿐, 성인의 단계에서 정체성 혼란의 위기와 정체감 확립에 대한 중요성을 다루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연구참여자들의 대다수는 중년기 여성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면서도 개인 내적으로 전

반적인 침체감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자아정체감의 재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업을 통해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들은 중년의 위기와 침체성을 극복해나가는 방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여성 만학도들은 대학에서의 학업과정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고, 배움에 대한 만족이 개인의 삶에 있어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교에서 꿈을 키우며 자기성장과 발전하는 자신의 미래모습을 꿈꾸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으로 교육적 요구의 충족과 자기개발, 삶의 질 향상이라는 평생교육의 관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여성 만학도들을 비롯하여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다각도의 교육적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전문대학교 간호학과 만학도 여학생들의 대학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세계의 실존체들의 의미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교 간호학과 만학도들의 대학생활 경험을 구조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경험의 구조화에서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전문대학교 간호학과는 이들에게 기회의 장소였다. 이에 전체적인 체험적 시간을 ‘전문대학교 간호학과: 기회의 장’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기회의 장소에서 간호사가 되기 위한 여정의 시작은 ‘대학생활 시작’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은 대학생활에서 낯선 곳의 이방인이었고, 학생이기를 방해하는 걸림돌, 학업이라는 난관 등이 나타나 이를 ‘대학생활 어려움’으로 명명하였다. 나와 같은 사람들과의 동행,

공존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간호사가 되기 위한 성장의 기회, 목적지를 향한 발걸음은 ‘포기하지 않는 나: 노력과 성장’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경험된 세계의 구조를 체험적 시간, 체험적 공감, 체험적 신체, 체험적 관계의 측면(Creswell, 2013; Spradley, 1979, 1980; Van Manen, 1990)에서 살펴봄으로써 생활세계의 복잡성을 기술하고 해석하기 위한 의미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의미구조는 전문대학교 만학도들의 대학생활 경험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경험적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첫째, 본 연구는 전문대학교 간호학과 만학도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에서 전문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만학도의 대학생활 경험을 연구하는 데 있어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접근하여 학생들의 삶과 대학생활 경험에 대해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문화기술학적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연령 범위를 30대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전반적인 간호학과 여성만학도들의 공통된 경험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료분석의 방법은 Spradley (1979, 1980)가 제안한 분류분석 방법으로 참여관찰과 면담 후 문화적 영역, 범주, 속성을 찾는 분류분석을 실시하였고 문화적인 영역들을 체계적으로 개념화하였다. 본 연구결과 학업을 뒤늦게 시작한 간호학과 만학도들의 어려운 대학생활을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대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되고 있지 않

은 간호학과 만학도 여학생들의 대학생활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서 대학생활의 시작, 어려움, 성장과정을 포함하여 연구하였으며 이들이 대학을 기회의 장소로 생각하고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대학생활에서의 어려움이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원자료를 바탕으로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이론적 모형으로 도출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문대학교 간호학과 만학도 여학생들의 대학생활 경험을 구조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어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를 30대 이상의 여성 만학도로 제한하였으나, 연령별로 나누어 세밀하게 경험을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중도에 간호학과 학위과정을 포기한 학습자나 간호학과와 남성 만학도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집단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해석을 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현장에서의 참여 관찰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수집을 통해 간호학과 여성만학도의 경험에 관해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가정과 대학생활을 중심으로 이들의 경험을 탐색하였기 때문에 졸업 후 취업현장에서의 상황적 여건이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측면을 살펴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실제 취업현장에서 이들이 처한 근로환경이나 처우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권정혜, 최은희, 최성열 (2015). 대학생들을 경험한 만학도의 생활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심리교육복지*, 2(1), 65-74.
- 김건숙, 조남정, 최은미, 하혜숙 (2013). 상담전공 만학도의 학부과정 경험 연구. *상담학연구*, 14(2), 775-799.
<https://doi.org/10.15703/kjc.14.2.201304.775>
- 김광수 (2020). 만학도의 대학 진학 동기와 변화된 삶의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8(1), 257-282.
<https://doi.org/10.25051/jner080110>
- 김대명 (2014). 지방대학 전업주부 대학생의 내·외제적 동기, 자기조절학습전략과 대학생활만족도의 구조적 관계: 전남 동부권 대학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4(2), 235-268.
<https://doi.org/10.22772/pnujws.24.2.201406.235>
- 김영화 (2002). 교육평등과 불평등. *교육비평*, 7, 82-95.
- 김은아, 장금성 (2012).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예측모형 구축.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8(2), 312-322.
<https://doi.org/10.5977/jkasne.2012.18.2.312>
- 김정민, 최연실 (2014). 50대 만학도 여성의 생애사 연구: 삶의 영역, 전환점과 적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1), 1-29.
<https://doi.org/10.18205/kpa.2014.19.1.001>
- 김정은 (2011). 일반대학생과 성인대학생의 교수행동에 대한 인식비교 연구.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영 (2010). 여성의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재진입. *노동리뷰*, 8, 36-50.
- 김철호 (2015). 중년기 여성의 고등교육 참여를 통한 학습경험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대학교 학습자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 (2018). 간호학과 여성 만학도의 학교생활 적응 경험. *인문사회* 21, 9(5), 143-154.
- 김혜숙 (2003). 성인학습자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선향 (2007). 성인 배움에 관한 연구: 학위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소영 (2006). 간호대학생의 학과 적응경험. *정신간호학회지*, 15(4), 409-419.
- 박연하 (2006). 중년여성의 학습경험 유형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일탁 (2010). 원격대학 재학생의 교육참여동기와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영 (2011).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반응 및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영 (2007). 수용적인 다연령 혼합 대학환경 조성을 위한 성인대학생 - 일반대학생 간의 상호작용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 13(3), 55-87.
- 박진영, 김누리 (2009). 성인대학생용 학업탄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15(3), 215-239.
- 박진영, 윤대한, 윤현숙, 오선아 (2014). 대학평생교육을 위한 성인대학생 핵심역량모델 개발 및 교육요구도 분석: 학생-교수간 인식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0(3), 121-158.
- 박진화, 이은경 (2016).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수신뢰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7), 831-844.
- 박현주, 장인순 (2010). 일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과 임상실습 만족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1), 14-23.
<https://doi.org/10.5977/JKASNE.2010.16.1.014>
- 백종주 (2002). 저학력 비문해 여성의 경험 세계에 관한 연구: 성인대상 한글교육을 받은 30-40대 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세정, 김현정 (2017). 간호학과 만학도의 경험에 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4), 501-520.
- 손준중, 구혜정 (2007). 비전통적 학습자의 고등교육기회분석 - 대학입학전형제도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3(2), 141-163.
- 신소홍 (2016).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학업탄력성의 조절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2(1), 14-24.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1.14>
- 윤정아 (2017). 성인의 학습참여동기와 자기주도 학습에서 학습정서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은혜경, 조영미, 전선미 (2014). 원격대학 성인 학습자들이 호소하는 학업상담 내용 분석 - 게시판 상담내용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5(6), 2509-2534.
<https://doi.org/10.15703/kjc.15.6.201412.2509>
- 이기연 (2006). 성인여성의 학습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방송대 주부학생의 사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슬기 (2009). 성인 학습자의 학습 갈등에 관한 연구: 학위 과정 참여자의 갈등 인식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 안영식 (2007). 만학도의 대학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3(3), 89-116.
- 장성화, 천영희, 함성수 (2014). 대학생의 교우관계, 역기능 가정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14(6), 539-548.
<https://doi.org/10.5392/JKCA.2014.14.06.539>
- 정은숙, 박현정 (2014).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섭취가 대학생의 스트레스 정도, 학습태도 및 수면시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2(2), 353-361.
<https://doi.org/10.14400/JDC.2014.12.2.353>
- 조선일보 (2019. 4. 3). 제 2 직업 찾아요” 전문대 늦깎이 새내기 1만명.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143.html에서 2022년 5월 27일 인출
- 채재은 (2007). 성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통계청. (2021). 장래인구추계 2020-2070. 대전: 통계청.
- 한국교육개발원. (2021). 2021년 교육통계분석 자료집: 고등교육통계편. 충청북도: 한국교육개발원.
- 한상길 (2008). 호주의 대학 AEPs(Alternative Entry Programs) 지원 성인학습자 성향 분석: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35(2), 195-218.
<https://doi.org/10.22804/jke.2008.35.2.008>
- 한상훈 (2003). 성인학습자의 교육참여동기와 자기주도학습의 관계. 평생교육학연구, 9(3), 225-246.
- 홍아정 (2010). 성인대학생의 학습동기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학연구, 48(3), 159-186.
- 황지원, 노일경, 정혜령 (2016). 성인대학생의 핵심역량 수준 진단 및 대학교육에서의 시사점 탐색: 재직자를 중심으로. 핵심역량교육연구, 1(1), 47-78.
<https://doi.org/10.52616/JCCER.2016.1.1.47>
- Betz, N. E., & Fitzgerald, L. F. (1987). *The career psychology of women*. Orlando: Academic Press.
- Boyer, E. L. (1974). Breaking up the youth ghetto. In D. Vermilye (Ed.), *Lifelong learners: A net clientele for higher education* (pp. 4-11) San Francisco: Jossey-Bass.
- Corder, J., & Stephan, C. W. (1984). Female's combination of work and family roles: Adolescent's aspir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6(2), 391-402.
<https://doi.org/10.2307/352471>
- Creswell, J. W. (2013)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New York: Sage.
-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https://doi.org/10.1037/0022-3514.92.6.1087>
- Faust, D. F., & Courtney, B. C. (2002). Interaction in the intergenerational freshman class: What matters. *Educational Gerontology*, 28(5), 401-422.
<https://doi.org/10.1080/03601270290081362-2038>
- Harris, M. (1968). The rise of anthropological theory: A history of theories of culture. New York: T. Y. Crowell.
- Kasworm, C. E. (2005). Adult student identity in an intergenerational community college classroom. *Adult Education Quarterly*, 56(1), 3-20.
<https://doi.org/10.1177/0741713605280148>
- Kasworm, C. E., Sandmann, L. R., & Sissel, P. A. (2000). Adult learners in higher education. In A. I. Wilson & E. R. Hayes (Eds.), *Handbook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pp. 449-463). San Francisco: Jossey-Bass.
- Lim, H. J., Ha, H., & Hwang, M. H. (2016). *The effects of grit on academic success among adult college student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Korean-American Educational Researchers Association, Washington, DC.
- Spradley, J. P. (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Spradley, J. P.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 차원고접수 : 2022. 04. 08.

수정원고접수 : 2022. 05. 29.

최종게재결정 : 2022. 06. 27.

Ethnography on the School Life Experience of College Women who Started Studying Late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Kim, Yu Na

Cho, Han Ik

Dept. of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chool experience and adjustment processes in the lives of college women who started studying late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nine women over 30 who started studying. Researchers used ethnography for the analysis of qualitative data. Our study derived eight dimensions and 19 categories from the school experience. The nine dimensions are 1) beginning the journey as a nurse, 2) feeling lonely in an unfamiliar place, 3) obstacles for students to learn, 4) facing difficulties in studying, 5) hanging out with people who have the same experience, 6) learning how to coexist 7) opportunity of growth as a nurse 8) stepping into the future. Although they had difficulties and frustration, difficulties in studying, feeling of alienation as a minority, and lack of learning time due to multiple roles performance, they had enhanced self-esteem and self-identity through the experiences of studying in college. Also, they have been satisfied with studying and moving toward a dream for the future.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seeks to understand the school life experiences of women who have started studying late, majoring in nursing, and raising social and policy interests.

Keywords: college women, department of nursing, studying late, school experience, ethnography